

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격체요, 영이시다

성경말씀: 요4:23-24

요즘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 맥아더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다. 왜? 1. 시29:2,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이다.

2.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요4:22-24).

하나님을 알면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지난 몇 시간, 주일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고전10:31,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난 시간, 하나님의 존재,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의해 알 수 있다. 10가지 논증

오늘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오늘 < >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한 발언을 하고 잘못된 신을 섬기게 된다.

1. 3500년 전 이집트의 파라오,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출5:2)

2. 2500년 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두라 평야에 형상을 세우고 모두가 경배하라는 명령,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불순종, 단3:15, 용광로 속의 세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25), 28-29, 4장의 불행

3. 행17장, 아테네 사람들의 알지 못하는 신(17:23), 수천 년 동안 헛된 예배

4.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잘못된 하나님 예배

호4:6, 6:6

롬10:1-3, 사1장,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처형함

5. 우리는 어떤가? 혹시 내가 상상해서 만든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상당히 신학적/교육적인 설교, 목사도 준비해서 전달하기 어렵고 성도들도 듣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주제, 그러나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한다.

하나님(God): God은 성경에 총 4444번 나온다.

1. 영어 단어 God은 실제로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잘 모르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는데 이것은 모세가 그분의 이름을 물을 때에 그분께서 친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여호와)라고 일러 주신 것으로(출3:14)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심과 자존(自存)하심을 잘 보여 주는 말이다.

2. 인간은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 그러므로 유한한 이성이나 이해력으로 무한하신 분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부질없는 일

즉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엄밀히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언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특정한 범주나 보편 개념 안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다른 것들과 구별 짓는 특성을 제시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독특하며 제한이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라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이사야 40:25)

비교종교학은 '신'이라는 개념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해 왔다. 모든 신 개념을 포괄하려는 일반적인 정의들—예를 들어 “최고 존재”(Supreme Being), “우주의 건축자” 같은 표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히11:6, 통찰력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3.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제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 보여 주신 다양한 이름들을 통해 전달된다.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본질에서 근본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적(personal)이시고, 영적(spiritual)이시며, 거룩하시다(holy)는 사실이다.
 이것들을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을 공부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및 정의

1.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영원하고 무한하며 완전한 분이시고,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자신의 권능과 섭리로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는 분으로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는 한 하나님이시다(신6:4-5).
2.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인격적 존재로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유일무이하게 살아 계신 신이라는 점에서 세상의 다른 신들과 현저하게 다르다(시18:46; 42:2).
3.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 역사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역사의 주인이시며(사40:10) 자연의 신비나 공포심 등에서 발생한 자연 종교의 신이나 사람의 이성에 의해 형성되거나 이해되는 철학적인 신이 아니다.
4.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창1:1; 사44:24) 전능한 분이시며(창17:1; 대상29:11) 온 세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행7:48) 사람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거룩한 분이시다(시29:2).

오늘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추상적이고 중립적인 형이상학적 개념들과 달리 성경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존재(Personal being)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교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단지 우주의 힘이 아니다. 우리는 다 인격체, 지정의 소유, 땅에서 유일하게 지정의 소유, 우리가 가진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속성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지정을 가진 인격체로 나타내셨다. 성경은 개인적인 호칭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묘사한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렸고 목자(시23:1)로 묘사되었다. 친구, 상담자로 불렸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인칭대명사 He를 사용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인격체이심을 안다. 그분은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느끼시고, 말씀하시며, 소통하시기 때문이다. 인간 창조의 증거, 성경의 증거가 그분이 인격체이심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특히 '여호와'(출애굽기 3:13-15; 6:3; 이사야 42:8)라는 위대한 인격적 이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개념에 따라 자각적으로 아시고 뜻하신다(롬:8:26, 고린도전서 2:10-11; 에베소서 1:11).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는 데 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독특한 인격적 관계를 포함할 뿐 아니라 창조물의 창조자요 공급자로서 그들을 친히 돌보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준다(마태복음 5:45; 6:26-32). 따라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갈4:6-7).

어떤 이들은 인격(person)이란 말이 인간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므로 하나님께 적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유: 인간의 인격성은 다른 존재들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격성이 인간보다 우선하며 인간의 인격성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유한하게 묘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초인간적인 인격성이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그분을 실재하는 인격적 존재, 즉 참된 ‘인격체’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단지 ‘제일 원인’이나 ‘최초의 운동자’로 보는 철학적 개념들, 또는 자연주의적·범신론적 개념들을 모두 반박한다. 현대의 일부 사조들이 하나님을 내재적 관계(예: 사랑)로만 동일시하는 것도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격성의 중심성은 그분이 인간 역사를 통제하고 인도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세우신 언약의 중심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지키시는 분, 메시아 약속, 재림 약속 등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인간적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요4:24).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몸처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육신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눅24:39)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영’이라는 말은 본래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활동을 의미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 본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된 생명체보다 무한히 뛰어나신 본질을 의미한다. 사람이나 짐승 같은 육적인 존재들의 무력함은, 영이신 하나님과 대조된다(이사야 31:3; 40:6-7).

천사는 영이다. 한 천사가 아시리아 사람들을 진영에서 185,000명을 죽인다(사37:36).

가다라 지방, 군단 마귀 들린 자, 무서운 힘(막5:3-4)

하나님의 천지창조, 말씀으로 무에서 유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 이어 기적 등 다양한 기적들(마4:24)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부활과 휴거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서, 자신 안에 무한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시편 36:9; 요한복음 5:26). 물질은 영에 의해 작동되며 하나님은 순전한 영이시다. 그분은 완전한 생명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요기 33:4; 시편 104:30). 하나님의 영적 본성은 어떤 물질적 관점에서 오는 제약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명하신다(출애굽기 20:4; 신명기 4:12, 15-18).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거나 물리적으로 조종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이며 살아 있는 능력이시며, 모든 존재는 그분에게서 비롯된다(사도행전 17:28).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그분을 육신의 형상이나 신학적인 추상개념으로 축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분은 인격적인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의 무한성으로 인해 마땅히 경배받아야 한다. 이 진리의 핵심에는 그 무엇도, 아무도 하나님과 비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십계명: 출20:2-5

1:1,2 명령, 결국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하게 된다.

현시대에도 하나님 이상으로 무언가를 높이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려야지 돈, 명예, 지위 등을 구하며 안 된다. 마6:33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즉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축소하려 한다면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 무엇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림이나 형상 등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분을 무엇에 비할 것인가? 그 어떤 우상이나 형상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분은 우주의 하나님이며, 작은 나무 조각, 금붙이에 새겨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도.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눈, 눈꺼풀, 손, 손가락, 팔 등에 대해 말할 때는 소위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을 사용한다. 신인동형론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이나 특성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런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다(민23:19). 성경은 우리의 제한된, 유한한 이해 수준에 맞추기 위해 그런 묘사를 사용하므로 그런 표현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결코 살과 피가 아니시다. 성경은 이와 비슷하게 자녀들을 지키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독수리, 독수리 날개와 깃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가 아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라고 말한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 성막과 성전 안에서 세키나의 영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때때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를테면 불타는 떨기나무나 환상을 통해서 말이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실제 본질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40:18, 25

결론

행17:27-31 사도 바울의 아테네 전도 결론

27-28절: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는 다 그분을 향해 살아 있다. 살든지 죽든지(행17:28).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29절: 우상 숭배 No!

30-3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파워, 인격체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석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고후5:21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거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며 인내하고 소망을 갖자.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 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요 4:24).